

卷頭言



自然保護의 實踐

韓國 國立公園協會 會長 金允基

自然 속의 一部分인 人間이 萬物의 靈長임을 自處하면서 人類史가 엮어져 왔으나 이를 들이켜 보면 人間의 必要에 따라 自然을 破壞내지 수탈하는 方式의 일방적인 利用으로 一貫된 歷史라고 할 수 있다. 自然을支配한다는 차만의 행위는 人類自體의 자멸을 인식할 만큼 自然의 秩序가 파괴되기에 이르렀고 공해의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연보호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 하나 실천에 옮겨가는 의도적인 행동이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7년에 국립공원 제도를 설립하면서 국토보전 의지를 제도적으로 확립된 바 있고 1977년 10월 朴正熙大統領의 先唱으로 自然保護 汎國民運動이 시작되었으며 지난 10月 5일에는 自然保護憲章을 制定宣布하여 새로운 自然觀 確立의 指標를 마련함으로서 자연보호운동의 정책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다져 놓았다.

어느나라 어떤 家庭을 가보아도 살기 좋은 生活環境을 造成하기 위한 努力이 숨어있고 가구는 精誠이 눈에 보이며 우리의 現實과 住居環境 實際에 잘 나타나 있다.

산과 들로 나가보자. 집 안에서는 아무리 가꾸고 精誠을 다기울려도 이루어 놓을수 없는 自然의 秩序와 調和가 있고 表現될 수 없는 奧妙한 絶勝과 아름다움이 있다. 보는자마다 느낌이 다르고 季節과 날씨와 보는 時點에 따라 달라지는 自然神秘가 좋아서 많은 探訪客이 몰려드는 景勝地 探訪風景 또한 아름답고 흐뭇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이 좋은 곳을 누가 더럽히고 파괴하는가?

더러운 것을 싫어하면서 더럽히고, 아름다움을 좋아하면서 파괴하는 異質의 마음의 所產이 자기 중심의 所有慾에 基因함을 깊이 반성하고 자연사랑의 본연의 진실성 회복에 새로운 각오로努力을 다해야 한다. 우리 제일의 보배요 유일한 유산인 금수강산을 내집 내물건 가구듯이 아끼고 사랑한다면 自然保護憲章은 준수되는 것이며 민족의 기상이 드높아 질 것이다.